

승객에게 조종간 맡긴 조종사



한 여객기의 조종사가 여성 승객을 조종석에 태우고 조종간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시베리아타임스는 러시아 이르아에로 소속 조종사가 규정을 어기고 조종석에 승객을 출입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츠크에서 바타가이로 향하는 이르아에로 소속 여객기의 비행에 맡은 조종사는 부조종석에 여성 승객 한 명을 앉혔다. 이 여성은 조종사의 지시대로 조종간을 조금씩 움직였으며, 조종사는 이 모습을 활영해주었다. 이 사실은 여성 승객이 최근 자신의 SNS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졌다. 고맙다."는 글과 함께 자랑하듯 영상을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이 공개되자 조종사가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게다가 해당 여객기가 1960년 제작된 노후 기종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 여객기는 구소련의 안토노프사가 제작한 AN-24 기종으로 2004년 1월 37명의 사망자를 낸 우즈베키스탄 추락사고와 2005년 7월 탑승자 60명이 전원 사망한 적도기니 바니 추락사고, 2007년 6월 16명의 사망자를 낸 캄보디아 추락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다.

당시 여객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대 5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문이 일자 이르아에로 측은 문제를 일으킨 조종사 키릴 에스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승객이 SNS에 올린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자폐증 아들의 생애 첫 질문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요?"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는 케리 블로흐(61)와 그녀의 남편은 살면서 아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 데이비드 블로흐(21)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불인 판정을 받은 케리가 마흔 살에 얻은 아기였다. 그녀는 "의사들이 애를 낳지 못할 거라고 했기에 더욱 귀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4살 무렵부터 심각한 자폐 증세를 보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멈췄고, 여러 번 말을 시켜야 겨우 단어 하나 내뱉는 수준이 됐다. 의사소통은 불가능했다. 앞친 데 닮친 격으로 선천적 희소병인 중증면역결핍증까지 겹쳐 사람들과 떨어져 격리나 다른없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외톨이나 다름없던 데이비드는 풋볼 경기에만 몰두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뱉은 완성된 문장이 "나는 재규어(풋볼팀 '잭슨빌 재규어스')를 사랑한다." 였을 정도였다.

케리는 "홀로 사는 아들을 보며 늘 마음이 아팠다. 아들에게 친구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고 설명했다.

케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자폐증을 가진 21살짜리 아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면서 "(그런 아들이)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내게 질문을 던졌다." 고 밝혔다.



데이비드가 했다는 최초의 질문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였다.

데이비드의 사연이 전해진 후 수백 명이 친구를 자처하고 나섰다. 케리의 SNS에는 1만 개에 달하는 응원이 쇄도했다.

케리는 "아들과 함께 답글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고 있다."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쁘다, 좋다는 단어를 반복하며 미소짓더라." 라고 말했다. 이어 "내 평생 아들이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다." 고 기뻐했다.

이들 모자는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메시지를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이비드는 며칠 후 뽀뽀뽀뽀한 글씨로 쓴 메시지로 감사를 전했다.

민머리로 미인대회 참가한 여성 암환우

항암 치료로 탈모 증상을 겪고 있는 19세 여성이 과감히 미인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어 용기를 전하고 있다.



'타운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디엔은 지난 6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자신을 찾아온 불행 앞에서 그녀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며 절망에 빠졌다.

인생의 시련 앞에 주저앉은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었다. 힘겨운 항암 치료 중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했다. 피아노 레슨도 빠뜨리지 않았고,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암 환자가 된 이후의 삶은 고통스러움의 연속이



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미인대회를 주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항암치료로 민머리가 된 상태였지만, 그녀는 미인대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결과는 뜻밖이었다. 오는 12월 중순까지 경연은 이어지지만, 현재 그녀는 최종 12인에 진입해 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다.

행사 주최자들은 처음부터 그녀를 주목했다고 전했다. 그녀가 암 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환한 웃음과 매 순간 보여준 독특한 개성이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엔은 "나처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